Eugene's FICC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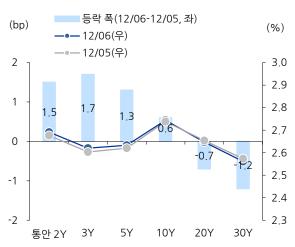


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i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76 i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 02)368-6177 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	d Income			(단위	: %,bp, 틱)
		12/6일	1D	1W	YTD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,620%	1.7	1,3	-53.4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744%	0.6	-0.7	-43.9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2.4	13.5	14.4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75	-8.0	-3.0	133
	10년 국채선물(LKTB)	119.55	-13.0	23.0	405
해외채권	미국채 2년물	4.106%	-3.9	-5.7	-14.4
	미국채 10년물	4.154%	-2.4	-2.3	27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4.8	3.3	1.4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108%	-0.6	2.0	10.4
	호주국채 10년물	4,224%	-1,2	-11.8	27.0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■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정치 불확실성 지속
- 미 고용지표 대기하며 제한된 움직임 보였으나, 오전 장 후반 급격히 약세폭 확대. 장 중 정치권에서 2차 계 엄 가능성이 거론된 결과
- 합동참모본부, 2차 계엄 리스크를 일축하여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. 한편 초장기 구간 금리는 하락하는 등 정치 리스크와 별개로 수급 영향이 우세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11월 NFP, 시장 예상치 상회 및 1~2달 전 수치도 상향 조정. 반면 실업률은 전월비 상승하였으나 유의미한 변 동은 아니었으며, 임금상승률은 높은 수준 유지
- 고용 호조에도 연준 인하 기조 훼손될 정도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. 12월 인하 기대, 80% 중반에 육박하며 금 리 하락했으나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으로 낙폭 제한
- 시장 기대와 달리 연준 인하 신중론 지속.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, 인하 속도 늦출 가능성 강조. 시카고 샌프 란시스코 연은 총재,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하다고 평가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& Commodity (EPI: %, \$)							
		12/6일	1D	1W	YTD		
한율	원/달러	1,419.20	0.3%	1.8%	10.2%		
	달러지수	105.98	0.2%	0.2%	4.6%		
	달러/유로	1.057	-0.2%	-0.2%	-4.4%		
	위안/달러(역외)	7.28	0.3%	0.5%	2.2%		
	엔/달러	149.97	-0.1%	0.2%	6.5%		
	달러/파운드	1,274	-0.1%	-0.0%	0.1%		
	헤알/달러	6.09	1.3%	1.9%	25.5%		
상품	WTI 근월물(\$)	67.20	-1.6%	-1.2%	-6.2%		
	금 현물(\$)	2,631.99	0.0%	-0.7%	27.6%		
	구리 3개월물(\$)	9,122.50	0.5%	1.2%	6.6%		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4.10원 상승한 1,419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23.0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, 달러-원은 소폭 상승 출발. 오전 중 여당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 는 모습을 보이고, 야당이 2차 계엄 관련 제보를 받았 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 1,429원 선까지 급등.
- 그러나 이후 정부가 2차 계엄 정황은 사실 무근이며, 발표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하면서 빠르 게 반락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고용 호조 및 캐나다 달러 급락 속 상승.
- 미국 11월 비농업 취업자는 +22.7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(+20만) 소폭 상회. 실업률은 4.2%로 상승했고, 임금상승률은 4.0%(Y)로 높은 수준을 유지.
- 1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도 74.0으로 5개월 연속 상승 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은 2.9%로 반등.
- 견고했던 미국 경제와 달리 캐나다는 실업률이 6.8%로 전월비 +0.3%p 급등하면서 캐나다 달러가 급락. 금주 50bp 인하 가능성 상승.
- 이번주 달러-원 환율은 1,410~1,435원 범위에서 등락 예상. 탄핵 무산으로 여야간 대치 심화되면서 정치 리스크 확대될 가능성.